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8. 27(월) / 총 1매	
담당 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윤상, 사무관 김현진, 사무관 김의연 ·☎ (044) 201-3940, 3949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파’ 치우친 코레일·SR 협의회” 보도 관련

- 지난 8월 23일 구성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 연구진은 언론기고,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하여 찬·반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선정하였고,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시민대표도 포함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 정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회 의견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가 집단 인터뷰, 국민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8.27 한국경제) >

“‘통합파’ 치우친 코레일·SR 협의회”

-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구성원의 전문가 6명 중 절반이 통합론자여서 경쟁으로 인한 장점을 주장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
- 연구용역 책임자부터 협의회 구성원까지 이미 통합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김현진 사무관(☎ 044-201-39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